

성서 속의 양자

이 은 주¹⁾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양자의 의미
- III. 구약에서 양자
- IV. 신약에서 양자
- V. 성경의 구원에서 양자
- VI. 나오며

주제어 : 성경, 양자,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 구약, 신약,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구원

<국문 초록>

사람들은 자주 종교에서 구원은 죄인인 우리가 신을 믿고 선을 행함으로써 의인이 되어 사후 세상으로 이어지는 기복신앙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도덕적 의인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서 성도의 양자로서의 권리가 이어진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이다. 그리스도인의 양자됨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이 들어가서 구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분의 변화,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게 된다.

따라서 성경에서 양자 개념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직결되어 있으며, 성경 속 양자제도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각도로 강조한다.

더욱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왕의 왕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라 불리며, 우리를 아름답게 돌보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천국 공주와 왕자처럼 계획되었고, 천국의 삶을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전남대학교 법학 박사

I. 들어가며

우리 인류에게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그 자체 또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났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우리 인류의 관념에 시간적·역사적 흐름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²⁾ 제33문에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며, 친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이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칼빈(John Calvin)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의해 양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이 모든 선의 창시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³⁾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양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2) 1562년 신성로마 제국의 팔츠 교회 감독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와 하이델베르크대학교의 신학부 교수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대부분 작성했고, 1563년 팔츠교회 연례교회회의에서 채택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팔츠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려고 한 선제후 경건자 프리드리히 3세가 지시한 종교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준비되었다. 프리드리히는 개혁신앙을 선호했지만 개혁파, 필리프 멜란히톤을 따르는 보다 온건한 루터파, 이들에 모두 반대한 정통 루터파 등 서로 대립하는 프로테스탄트 집단들을 연합하고자 했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화해의 기초가 되기를 바랐다. 이 교리문답의 저자들은 그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에 쓴 교리문답서들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리문답을 준비하려고 했다. 성례전을 논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개혁파 신조들을 가능한 한 온건한 멜란히톤을 따르는 루터파의 입장에 접근시키려고 노력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예정론교리는 매우 온건하게 진술되었다. 이 교리문답의 장점은 지적이거나 교의 중심적이거나 논쟁적이기보다는 실제적·신앙적이라는 데 있다.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은 독일 프로테스탄트 집단들을 연합시키지 못했지만,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었으며 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4h2222a>).

3) John Calvin, McNeill-Battles, tra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9), 41p, 288~289p, "For even if believers sometimes ask that their hearts be conformed to obedience to God's law, as David in a number of passages does, yet we must also note that this desire to pray comes from God... When he desires that a clean heart be created in himself(Ps. 51:10), surely he does not credit himself with the beginning of its creation...'God has anticipated you in all these things; now do you yourself-- while you may--anticipate his wrath. How? Confess that you have all these things from God: whatever good you have is from him; whatever evil, from yourself.' And a little later, 'Nothing is ours but sin.'"

있다.’는 믿음과 관념이 성립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⁴⁾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양자의 의미, 구약 속의 양자, 신약 속의 양자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올바른 신앙적 관점과 사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양자의 의미

구약과 신약의 양자제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양자의 의미와 목적, 다양한 양자제도의 용어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양자는 양친이 될 사람과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양자는 양부모와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친자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양부모의 자녀와 가족구성원이 되고, 양부모에 대해 혈연관계와 같은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게 되며, 양부모는 양자에 대해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자제도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만들어 주는 제도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⁵⁾, 세계 각국은 역사적·문화적·종교적 배경에 따라 양자제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에는 수양자와 시양자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허용되었으나 본질적으로 입양은 ‘가계계승을 위한 것’이었다.⁶⁾ 1960년 민법에서는 전통적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제도’를 다소 완화시켜 ‘자를 위한 양자제도’가 대폭 도입되었으나 ‘가를 위한 양자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⁷⁾ 1990년

4) 양자라는 말이 문화적, 사회적 인식을 통해 볼 때 친자보다는 좋은 어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양자라는 단어가 남성 중심적인 단어라는 점에서 또한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양자의 단어가 남성 중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양자 개념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친자와 구분하는 의미는 아니다. 필자는 양자를 ‘자녀’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함을 밝힌다.

5) 백성기, 「친족상속법」, 진원사, 2011, 170p.

6) 신영호·김상훈, 「가족법강의」 제3판, 세창출판사, 2018, 176p.

7)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법에서는 ‘가를 위한 양자제도’가 일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양자는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었고,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되어 입양을 꺼리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고, 그 결과 2005년 민법에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오늘날의 양자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을 마련해 주는,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사회 정책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러한 양자제도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입양 아동이 모든 면에서 친생자와 차별받지 않고 입양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양육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국가가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것을 필요로 한다.⁸⁾

세계 각국은 입양의 요건이나 효과 면에서 조금씩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양자가 친생자와 구별되는 법적·사회적 지위, 인식정도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양자의 유형은 생가부모와 완전히 단절되는 ‘완전양자’⁹⁾와 단절되지 않는 ‘불완전양자’¹⁰⁾로 나눌 수 있다.¹¹⁾ 양자로 된 자가 새로운 가정에서 ‘친생자’가 누리는 것과 똑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¹²⁾ ‘완전양자’는 앞에서 설명한 우리나라의 ‘친양자’와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자의 복리(the Welfare of the Child)를 위하여 2005년 민법에 친양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민법의 ‘친양자’와 같은 양자를 외국에서는 ‘완전양자’ 또는 ‘특별양자’라 부르는 것이 보통이나 2005년 민법에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과정 중에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친생자처럼 취급되는 양자’라는 의미로 ‘친양자’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것이며, “완전양자란 용어는 일반양자가 불완전양자처럼 비추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특별양자란 용어는 통상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8) 윤대성, 「가족법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10, 179p.

9) 완전양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친생부모와의 혈족관계)가 종료되고 친양자(full adoption)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에 단절양자(relinquishment adoption)와 종래의 양자를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보장받으므로 특별양자(agency adoption)라고도 한다.

10) ‘불완전양자’는 일반적으로 ‘보통양자’ 또는 ‘일반양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11) Homer H. Clark Jr, Law of Domestic Relations, 1969, 600p.

12) 김상용-Rainer Frank, "완전양자제도(친양자제도)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한 유일한 대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3권 제1호, 2002, 351p.

한 특례법'에 규정된 양자를 지칭하고 있으므로 혼동의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¹³⁾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양자제도는 그 형식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양자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실질적 운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형식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를 다른 나라의 양자제도와 비교해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에서는 시간·역사적 흐름에 따른 성서 속의 양자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구약에서 양자

1. 고대사회에 입양으로 간주한 사례

BC 2000 ~ BC 331년경까지 고대 바벨론과 중기 바벨론 시기의 자료들에서 입양 관습과 관련한 설형문자 자료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자료들 중 입양계약들의 내용면에서는 실제적이고 양적으로 방대하지만 입양을 완전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기능면에서도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관련 입양계약들 역시 입양의 환경이나 입양 양측의 나이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내용면에서 제한이 있다.¹⁴⁾

설형문자 Kulturkreis에서는 입양의 여러 형태들이 관찰된다. 입양의 대상들은 남자, 노예, 사생아, 여성들의 네 부류가 있는데, 한 남자 개인은 상속자로 입양되거나 입양되기 전에 수습기간을 가지기도 했고, 노예의 경우는 입양을 통해 신분이 해방되었으며¹⁵⁾,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입양을 통해 적법한 자녀로 인정되었고, 여성들은 주로 남편에게로의 인도(결혼)를 목적으로 입양되었다. 이때 한 신랑에게 속하는 여러 명의 부인들은 입양으로 맺어진 자매가 되는데, 이

13) 국제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안 공청회자료 법무부 의견, 1993. 3. 11, 10p ; 김성숙, 「사회변동과 한국가족법」, 나남, 2008, 600p.

14) David Noel,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NewYork: doubleday, 1992), 77p. 쇼올(Schorr), 콜러(Kohler), 코샤커(Koschaker), 운그나드(Ungnad)는 상당수의 고대 바벨론 문장들을 수집했다. 스페이저(Speiser), 카쥘(Cassin)은 논의 중인 중기 바벨론 누지(Nuzi)지역의 문장들을 제시한다. 법 자료모음들에서 입양 관련은 코텍스 함무라비 170-171조항, 185-193조항, 에슈누나법 35조항, 중기 아실리아법 A28조항이다. 그밖에도 '샤르곤의 전설'에서 엽둥이의 입양을, '아나 이티쑤'의 어휘 시리즈에서 입양 절차의 세밀한 부분까지 읽을 수 있다. 양자의 보호권에 대한 소송이나 상속권의 기록도 있다.

15) David Noel, Freedman, ed, NewYork: doubleday, 1992, 77p.

점에서 고대사회의 입양은 가족 통합 촉진의 역할도 했다. 한편, 아들이 없는 남자는 재산을 가족에게로 귀속시키기 위해 양자를 들일 수 있었다.¹⁶⁾

그리고 돈, 토지, 서비스시스템에서도 입양의 형태들이 나타났다. 누지(Nuzi)¹⁷⁾지역에서는 특히 토지매매가 입양형태를 띠었는데¹⁸⁾, 토지구매자는 토지소유주에게 입양되었고 동등한 가치의 선물, 재능을 교환함으로써 토지구매자에게 상속재산으로 땅이 주어졌다. 이러한 판매를 통한 입양들은 종종 선조들의 재산을 소원(疏遠)하게 만드는 것에 맞서 그 금지규정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입양하다’의 가장 일반적인 아카드어(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지방을 포함하는 동부지방의 썸어)식 표현은 ‘아들 혹은 딸로 생각하다.’의 뜻이고 개인들은 형제, 자매, 심지어 아버지 등의 여러 역할로서 입양되었다. 특히 누지(Nuzi)지역에서 결혼할 신랑에게 인도되기 위해 입양된 여자들은 딸의 지위를 얻게 된다(혹은 며느리, 딸 또는 며느리, 또는 자매). 입양의 효력은 양측의 합의 하에 발생한다. 양측 당사자로는 입양자, 피입양자의 부모로 보호자이고, 가끔 피입양자 자신의 의사가 영향을 준다. 입양계약 기록에는 입양관계, 계약해제, 서약, 증인의 이름, 날짜 등이 적혀 있었다. 이러한 단서들은 입양에 관한 예식이 행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집트가 보존하는 몇 안 되는 문서 중 ‘시누헤 이야기’는 시리아, 팔레스타인지역에서의 사위의 입양에 관한 사례를 포함한 것으로 여겨진다. ‘비범한 입양’이라는 문서에는 아내를 딸로서 입양, 아이가 없는 남편의 상속자로 언급된다. 남편이 죽으면 곧 이어 아내는 자유롭게 되었고 세 명의 노예들을 입양했다. 세 명의 노예들 중 하나인 어떤 여자는 그때 상속자로서 입양되는 그 아내의 형제와 결혼했다. BC 656년경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문서에 바로왕 사메티쿠스(Psammetichus)는 그의 딸 니토크리스(Nitocris)가 이집트 데벳에 있는 아몬 신전의 결혼하지 않는 신의 아내의 후임자로서 입양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BC 416년경으로 추정되는 엘레판틴(Elephantine)에 있는 유대 식민지로부터 발굴된 아람어 파피루스에는 노예의 해방과 입양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다.¹⁹⁾

16)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1992, 77p.

17) 누지(Nuzi)지역은 Kirkuk의 인근이며, 티그리스(Tigris)의 E이다. BC 15세기의 문서들이 1925년 이래 누지에서 발견되었다. 이 문서는 입양이 썸족의 문명에서 입법화되었음을 보인다.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1, 48p.

18)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1992, 77p.

19) 위의 책 재인용 77p. 입양자와 피입양자는 유대식 이름을 지닌다. 카타콤의 글들은 로마 시기

2. 구약에서 입양으로 간주할 사례들

칠십인역과 구약성서, 후대 유대교 자료에서는 헬라어 υιοθεσία가 사용된 예가 없고²⁰⁾, 유대 관습에서는 입양법이 소개되지 않는다. 신약에서는 입양이 주로 상속 문제를 해결해준 반면에 유대 관습에서는 상속 문제의 보완책이 될 만한 일부다처제(polygamy), 역연혼제(levirate marriage), 여종을 통한 대 잇기, 아들이 없을 경우 딸 상속권 등이 있었다. 그런데 구약성서에서도 입양 유사 사례들이 나타난다. 먼저 모세(출 2:10), 그누밧(왕상 11:20), 에스더(에 2:7)²¹⁾의 경우인데, 이들은 팔레스타인지역 밖의 이집트, 페르시아에서 자란 공통점이 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널리 행해지는 입양의 관습이 있었다. 모세나 그누밧은 이집트 왕인 바로의 아들로 입적되었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사촌 모르드개에 의해 키워졌다. 모르드개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붙들려갔으나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않았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명령에 따라 왕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겼다(에 2:10, 20). 의도적으로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은 이들은 당시 페르시아 관습에 따라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입양의 유사 사례들은 아브라함(창 15:2-3), 사라, 라헬(창 30:3), 레아, 요셉(창 50:23), 나옴(룻 4:16)의 경우인데, 아브라함, 라헬의 경우는 자신의 소유인 종을 아들로 삼거나 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 했고, 요셉과 나옴의 경우는 손자를 아들로 삼았다. 이 사례들은 입양과 유사해 보이지만, 혈연이나 친족과 전혀 무관한 낯선 사람의 입양으로 보기는 힘들다. 사라, 라헬, 레아의 경우는 각기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본처가 대리모의 자식을 입양했는지에 관하여 성서 밖에서는 유사 사례들이 명확하지 않다. 성서의 설명은 입양의 두 가지 면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첫째는 본처에 의해 입양이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본처에 의한 입양은 아내가 여종(노예)을 소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 자식은 자주 노예의 자식으로 불렸고 이는 출생의 비밀이 끊임없이 알려지도록 요청하는 생모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는 라헬을 통해 보이는 일종의 입양 의식

에서의 유대인의 입양을 증언한다.

20)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14p.

21) 위의 책 재인용 15p.

으로 여성이 아기를 낳아 남편의 무릎에 놓는 일종의 여성 관습을 통해서 라헬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인데, 라헬은 자신의 종이 아기를 낳아 자신의 무릎에 놓도록 희망했다(창 30:3). 당시 어떤 사람의 아이를 무릎에서 받거나 놓는 것은 입양을 나타내는 반면,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놓는 남편의 행위는 적법한 자손으로서의 아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²²⁾

구약성서와 연결해서 υιοθεσία가 쓰인 로마서 9장 4절에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그들은” 로마서 9장 3절의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가리킨다. 이 구절에서 “양자됨”은 “이스라엘 사람”을 수식한다. 4절은 이스라엘 사람의 특권을 나열하는데, 이스라엘인의 양자됨이 그 중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바울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양자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뜻하는 말이 된다. 구약성서에는 하나님이 왕이나 그들의 공동체를 아들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바울의 입양 언어 사용에 있어 구약과 유대 배경을 뒷받침함을 가리킨다.²³⁾ 구약본문을 통해 그들의 양자됨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편 2편 6-7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 2:6-7) “I have installed my King on Zion, my holy hill. I will proclaim the decree of the Lord. He said to me,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NIV)

시편 2편은 왕에 대해 “기름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들”이라는 세 가지 호칭이 함께 나오는 유일한 구약본문이다.²⁴⁾ 이 시편은 왕의 즉위식이나 그 즉위를 기념하는 축제를 배경으로 하는 시편들 가운데 첫 번째 시편이

22)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77p.

23)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15p.

24) James L. Mays, Psalms Interpretation, 「시편」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83p.

다.²⁵⁾ 2절의 “기름부음 받은 자”는 왕을 가리킨다. 6절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자신의 소유로 표현한다. “시온에 세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왕의 즉위를 의미한다. 시온은 예루살렘성이 있는 남동부에 위치한 언덕으로 “시온”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사용된 말이다.²⁶⁾ 왕을 세우신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왕의 즉위식에서 왕이 밝히는 것이다. 7절에서 왕이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여호와와 명령은 즉위식 때 왕에게 주어진 문서로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을 새롭게 하는 개인적 문서였다. 그 문서의 내용은 새로 보좌에 오른 왕의 권위와 임무를 밝히는 것이었다.²⁷⁾ 여기서 왕과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 ‘양자’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과 인간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계약을 맺는 양자계약의 원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 시내산계약 ’의 일부분이다.(신 1:31)²⁸⁾ 이 시내산계약이 다윗의 집과의 계약으로 옮겨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왕과의 계약으로 그 대상이 좁혀진다. 다윗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은 영원하지만, 그 계약은 속성상 계속 갱신되는 특성이 있다. 오늘 즉위식을 치루는 왕도 다윗의 새로운 후손으로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로운 왕에게 갱신됨을 나타낸다. 여기서 “낳았도다”라는 비유적 표현은 단순히 양자의 법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기 보다는 즉위식 때 거룩한 본성의 새로운 출생이 있었음을 나타낸다.²⁹⁾

2)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삼하 7:14) “I will be his father, and he will be my son.”(NIV)

본문 구절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들의 일부분이다. 즉 다윗 혈통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언약 관계의 근거가 된다. 당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는 양자, 언약, 왕권의 허락이라는 세 가지 합법적인 언약의 당사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었다.³⁰⁾ 여기서도 다윗 왕

25) 위의 책 재인용, 83p. 시편 72, 101, 110편

26) Peter C. Craigie, 「WBC 성경주석19 시편(상)」,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0), 77p.

27) 위의 책 재인용, 78p.

28)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29) Peter C. Craigie, 「WBC 성경주석19 시편(상)」,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0), 78p.

이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되는 것은 육체적 혈통에 근거하지 않는다. 본문의 하나님의 양자됨은 하나님과 다윗 왕 사이의 언약이라는 관계 성립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구약에서의 양자의 입양은 거의 가족 내의 입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³¹⁾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양자됨은 본문에서 언약 언어로 보편화되어 나타나고 있다.³²⁾

3)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호 11:1) “When Israel was a child, I loved him, and out of Egypt I called my son.”(NIV)

본문 구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관계 초반기의 역사를 회고한다. 즉, 출애굽과 광야 유랑 시기인 유아기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부모의 경험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다.³³⁾ 호세아 11장 1절은 특히 출애굽기 4:22-23³⁴⁾의 빛에서 가장 잘 이해되는데, 이스라엘의 아들의 선택을 애굽으로부터 해방과 연결시킨다.³⁵⁾

“사랑하여”에 해당하는 ‘아하브’는 ‘깊은 애정’ 또는 ‘~에 충성적인’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신명기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데³⁶⁾, 신명기의 언약적 충실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도 신명기와 유사한 어법으로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아하브’는 전자와 함께 후자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진다.³⁷⁾ 또 ‘부르다’는 의미로 쓰인 ‘카라’는 다양한 의미³⁸⁾로 사용된다. 본문에서는 부분적으로 선택, 채택의 의미에 강조점을 두며 문맥으로는 ‘소집하다’, ‘모으

30) A. A. Anderson, 「WBC 성경주석11 사무엘하」, 권대영 역 (서울: 솔로몬, 2001), 226p.

31)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실제로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전 그가 상속자로 염두에 두었을 뿐이다(창 15:2).

32)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15p.

33) James Limburg, Hosea-Micah Interpretation, 「호세아-미가」(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81p.

34)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35) Douglas Stuart, 「WBC성경주석 31 호세아-요나」, 김병하 역 (서울: 솔로몬, 2011), 350p.

36) 신 6:5, 7:8, 10:15, 23:6

37) Douglas Stuart, 「WBC성경주석 31 호세아-요나」, 김병하 역 (서울: 솔로몬, 2011), 351p.

38) 부르다, 채택하다, 호출하다, 선언하다, 초대하다, 호소하다, 큰소리로 읽다.

다'의 의미도 있다. 이때의 해석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라는 관점에서 읽혀진다. 특히 헤롯이 죽고 난 뒤 어린 예수의 출애굽(마 2:15)을 호세아 11장 1절의 성취로 보는 마태의 기록은 호세아가 사용한 이 어법과 일치한다.³⁹⁾ 그럼으로써 본문 구절은 메시아적 예언으로 기능하게 된다.

구약 성경이나 칠십인역에서 양자결연이라는 헬라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함무라비 법전에도 언급될 만큼 입양 관습은 고대 근동지역에서도 일반적인 관습 중 하나였고, 그들 중 기록된 몇 사례들은 구약성경과 비견할 수 있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925년 이라크 북동부의 누지(Nuzi)지역에서 발견된 주전 15세기경의 바벨론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는 진흙 서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입양과 관련하여 유사 시간대를 살았던 족장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⁴⁰⁾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노예였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양자가 될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당혹해했다.⁴¹⁾ 그러나 누지문서(HIX22)는 노예의 입양이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그 문서에 따르면 자녀가 없던 부부가 아들을 입양할 경우 그는 양부모 살아생전에 봉양하고 죽었을 때 매장과 호곡 등 그들의 장례를 책임졌었다.⁴²⁾ 그러나 노예가 입양된 후에라도 자녀가 없던 부부에게 아들이 생겼을 경우 친자에게 양자는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했다.⁴³⁾

누지문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입양 양식의 예는 G51이라는 누지문서 서판을 보면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⁴⁴⁾ 라반이 야곱을 처음 만날 당시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라반은 자신의 상속자로 야곱을 입양했을 것이고 그 후에 라반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반은 자신의 딸들과 야곱의 결혼과 관련하여 한 가지 조건은 그가 다른 여인과 결혼하면 그가 물려받은 모든 라반의 재산이 몰수된다는 것이다.⁴⁵⁾ 라반의 “딸들은 내 딸이

39) 위의 책 재인용, 351p.

40) The Biblical Archaeologist, vol.3, February, 1940, 2p.

41) 창 15:2~3

42) Rossell, "New Testament Adoption-Graeco-Romna or Semitic?", cd, 2011, 234p.

43) Ibid.

44) The Biblical Archaeologist vol.3. February, 1940, 5p, ; William Foxwell Albright, The Archaeological of Palestine and the Bible(Cambridge, Mass: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74. 6p.)

45) 창 31:50

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⁴⁶⁾라는 부분은 야곱의 가솔들이 여전히 라반에게 속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야곱이 여전히 라반의 양자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⁴⁷⁾

이외에도 구약성경은 여러 입양에 관한 유사 사례들을 언급한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데, 일종의 입양절차가 암시되고 있고⁴⁸⁾, 솔로몬을 피해 달아난 하닷이 바로의 왕비의 처제에게서 낳은 아들 그누밧도 바로에 의해 입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⁹⁾ 또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관계도 일종의 입양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⁵⁰⁾, 학자들에 따라서 위의 경우들은 유대적 환경을 떠난 이방 세계에서 일어난 만큼 유대적인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한편, 신명기에 보면 아들이 없이 죽은 남자의 미망인이 죽은 자의 형제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로 죽은 남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⁵¹⁾

따라서 한 가족의 계보를 잇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유대 사회에서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같은 혈통에서 찾으려고 했으므로 양자결연제도는 유대인들에게 낯선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양자결연이 풍속화되었거나 일상생활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²⁾

3. 양자제도의 특징

구약시대에서는 합법적인 아들은 죽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었는데, 여러 아들이 있다면 공평하게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딸들에게는 그들의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유산을 받지 못했고, 죽은 자의 아내나 유족 중에서 딸들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 물려받은 유산의 몫 중 일부분만 나눠주었으며, 대신에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들은 결혼하지 않은 딸들의 지참금을 포함하여 가솔들의 필요를 돌봐야할 책임이 있었다. 즉 상속자인 아들은 아

46) 창 31:43

47) Albright, The Archaeology of Palestine and the Bible, 1974, 6~8p.

48) 출 2:10

49) 왕상 11:20

50) 예 2:7

51) 신 25:5~6

52) Roland de Vaux, Das Alte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Verlag Herder KG Freiburg im Breisgau, 1964), 이양구, 「구약 시대의 생활 풍속」(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3), 103p~104p.

버지의 삶을 그대로 이어받는 연속적인 것이었다.⁵³⁾

그 당시에 여성의 평균 수명은 30대 중반, 남성은 40대 중반이었고, 영아 사망률도 어른 사망률의 두 배 이상이었어서 열 가정 중 네 가정이 가계를 이을 적당한 아들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⁵⁴⁾ 따라서 상속자로서 적합한 아들이 없는 경우 입양이 일반적으로 고려되었는데, 구약시대에 정형화된 양자결연에 관한 법조항이 없더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양자결연에 관해 생존자 사이의 계약(inter vivos), 유언장에 의한 계약(testamentary), 사후의 계약(posthumous) 등 세 가지 규칙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⁵⁵⁾

첫째 ‘생존자 사이의 계약(inter vivos)’은 양부(the adopter)가 양자(the adoptee)를 그의 생전에 받아들이는 양자결연 방식이었다. 둘째 ‘유언장에 의한 계약(testamentary)’은 입양을 원하는 아버지가 입양할 아들을 그의 유언장에 지명하여 그의 사후에 입양이 집행되도록 하는 양식이었다. 셋째 ‘사후의 계약(posthumous)’은 어떤 사람이 합법적 상속자도 없이 또 입양할 아들을 지명하지도 않고 죽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죽은 자의 아들이 되고 그 집안에 입양되어 그의 재산과 기업을 계승하게 되는 형태였다.⁵⁶⁾

이 양자결연에 관한 세 형태 중 ‘생존자 사이의 계약(inter vivos)’이 입양한 아버지의 사후에 문제의 소지가 가장 적은 형태였다. 이미 아버지의 생전에 그 아들이 입양되어 합법적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생존자 사이의 계약(inter vivos)’으로 입양된 아들은 어떤 추가적인 법적 선언 없이도 입양자의 본래적 아들로 간주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가졌다. 반면 다른 방식으로 입양된 아들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전에 법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승인받는 절차가 요구되었다. 앞서 말한 대로 양자결연의 주된 목적은 가계와 그 가정만의 독특한 가풍을 영속시키고 양부의 노년을 보장받기 위함이었다. 그 당시의 자녀가 없는 가정들은 그의 노년을 돌보고 그가 죽고 난 후 장례를 치러 주고 그를 위해 가정의 제례를 행할 대상을 찾았다.⁵⁷⁾

53) Walters, "Paul, Adoption, and inheritance," 2001, 46p.

54) Ibid.

55) J. M. Scott. Adoption as sons of God : An Exegetical Investigation into the Background of Hypothesis in the Pauline Corpus(Tubingen : J. C B. Mohr, 1992). 5p.

56)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 1, 1980 ed., 108p.

57) Scott, Adoption as Sons of God, 1992, 4p.

따라서 이때의 양자제도는 양자가 받는 혜택도 있지만 오히려 양부의 개인적 이익과 필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⁵⁸⁾고 볼 수 있다. 구약에서 양자결연제도는 각 대상자에게 일정한 규정이 적용되었는데,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양부가 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여성이나 미성년자는 배제되었고 양자결연으로 엮어질 두 가문은 시민의 지위를 가진 가문이어야 했다. 양자 후보자는 적법한 결혼에 의한 아들이어야 했고, 양부가 될 사람은 적법한 아들이 없는 자로서 소중중이어서도 안 되며, 개인이나 나라에게 현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자도 자격이 되지 않았다. 한편, 양자로 들어온 자는 그의 본래적 가족과는 분리되어 양부의 집에 입양된 의무와 도리를 다해야 했다. 즉, 양부의 가계와 그 가족의 제의를 영속시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양부와 조부의 이름을 따른 새 이름을 받기도 했다. 양자는 이러한 의무를 감당함과 동시에 양부의 법적인 상속자로서 토지를 포함하는 권리와 권한을 소유하게 되었다.⁵⁹⁾

그러나 구약의 양자제도에서 특별한 점은 양자의 친가에의 완전한 단절이나 양부의 가계에의 완전한 종속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⁶⁰⁾ 다시 말해 구약의 양자제도는 입양 전 가족과의 관계를 완벽히 끊지 않는다. 양자는 입양과 함께 자신을 낳아준 생부와와의 관계성이나 유산 상속의 권리를 다 상실한다 하여도 생모와의 관계성을 잃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는 여전히 어머니를 통하여 근친으로서 친족관계를 유지하며 상속의 권리도 갖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는 양부의 집에서 자신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합법적인 아들을 남겨놓고 양부의 재산과 토지에 대한 그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는 본래적 가족에게로 돌아가 아들로써 의무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⁶¹⁾

더욱이 구약 사람들은 그 후에 다른 형태의 ‘유증계약(the legacy testament)’을 발전시켰는데⁶²⁾, 이 계약에 따르면 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일종의 기금을 형성하여 입양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장래와 미래적 제의를 준비하였다. 이 양식은 입양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던 가정의 제의 의무를 양자로부

58)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가본위 양자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59)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 1, 1980 ed., 109p.

60) Francis Lyall, "Legal Metaphors in the Epistles," Tyndall Bulletin 32, 1981, 91p.

61)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 1, 1980 ed., 109p.

62) James D. Hestea, Paul's Concept of Heritance (London : Oliver and Boyd. 1968), 13p.

터 제거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 조성 후 가장이 자신의 가계를 이을 입양 대상을 지명하지도 않고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여 양자결연제도가 약화되거나 퇴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⁶³⁾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개념은 신약에 와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면면히 흐르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출4:22),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이니”(신 14:1),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사 63:8),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호 1:10)⁶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고, 그 독특한 관계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언약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신정통치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신 창조주이자 그들을 다스리시는 군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와 소유 하에 있는 백성이 되는 관계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정통치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고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짓는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약적 특징이다. 구약을 특징짓는 신정통치 관계는 이미 구약 안에서도 점차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친근한 관계로 옮겨간다.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의미가 민족, 국가 등의 공동체 규모에서 점차 개인적 차원으로 옮겨가며 친근해진다.⁶⁵⁾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친근한 관계가 때때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분깃”, “기업”, “유업”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⁶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63) Ibid.

64) 이외에도 신명기 32:6,18, 시편 73:15, 103:13, 이사야 1:2, 63:16, 예레미야 3:19, 31:20, 호세야 11:1, 말라기 2:10 등을 참고할 수 있다.

65) Herman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2), 233-236 참조, 리더보스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조명하면서 유대주의는 신정통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신약은 하나님을 군주의 개념을 넘어서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백성보다 친근하고 개인적인 자녀의 관계로 묘사한다고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가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것이 리더보스의 논점이다.

66) 참고로 “우리 하나님이지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대하 20: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롬 9: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신 14:2),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고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약에서만큼 친근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언약사적 또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갈 4:4).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됨은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훨씬 중심적인 개념이 된다.

IV. 신약에서 양자

가계의 계승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문제로 신약에서의 입양은 상속자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 입양을 통한 새로운 신분의 획득은 구속을 통한 옛 신분과는 결별하였음을 암시하고 마치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던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구속이 그 선언 속에 내포된 것이다. 지금의 입양은 사적인 형태의 일이지만 신약시대의 입양은 공공의 장소에서 대외적으로 베풀어진 의식을 통해 공증을 받는 익숙한 사회적 현상이었다.⁶⁷⁾

신약시대에서 양자제도의 목적은 구약시대와 유사하다. 신약 사람들 역시도 가계를 잇고 가족 제의를 영속시키기 위해 입양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입양된 자는 그렇지 않을 경우 상실하게 될 양부 가족의 이름, 재산, 가족 풍습을 계승해야 했고 아울러 양부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까지도 상속받게 된다.⁶⁸⁾ 로마 역사에서 네로는 클라우디우스의 양자로 들어와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로마 황제가 되었다.⁶⁹⁾

아버지는 생사여탈권이 있을 만큼 절대적이고 가장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의 살아생전에 장성한 자녀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전혀 소유할 수 없었고, 아버지의 사후에야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⁷⁰⁾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 자녀는 결코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택하신 기업이로다.”(신 32:9),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시.”(시 106:40)

67) Mark Black "Paul and Roman Law in Acts" Restoration, Quarterly24, 1981, 209-218p.

68) Scott. Adoption as Sons of God. 1992, 9p.

69) 「호크마 중합주석 : 로마서」 (서울 : 기독교지혜사, 1991), 280~281p.

70) Carolyn Osick and David L. Balch, Families in the New testament World : Households and House Churches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7), 56~57p.

특히 미성숙 자녀의 경우 법률관계상 실질적으로는 노예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가장의 죽음만이 자녀에게 있어 노예상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유산과 관련하여 딸들에게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았던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아버지의 사후에 장성한 아들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딸들도 유산 상속의 자격을 가졌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를 갖고 있었다.⁷¹⁾

훨씬 강화된 아버지의 권위는 입양에 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양자에 대한 양부의 영향력과 권위가 강화되어 양자에 대한 양부의 요구조건이 엄격히 적용되었다. 따라서 양자는 그의 옛 가족과의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했다. 다시 말해 양자는 구약의 입양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머니와의 친족관계를 통한 상속의 권리와 의무도 포기해야 했다. 전형적인 그 시대의 입양은 아직 친부의 권위 아래 있는 자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입양절차는 친부가 자신의 아들을 중개인에게 팔고(다른 표현으로 친부에게서 해방시키고) 중개인은 다시 그 아들을 양부에게 넘겨 판매행위가 끝나면 친부는 종결되고 양부는 입양대상인 아들이나 딸을 자신의 양자나 양녀로 선언하였다. 친부가 더 이상 이의제기가 없으면 판사는 입양이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절차를 밟았다.⁷²⁾

한편, 신약의 입양이 구약의 생존자 사이의 계약(inter vivos), 유언장에 의한 계약(testamentary)의 두 가지 입양 양식은 답습하고, 사후의 계약(posthumous)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제3의 adrogatio라는 규정이 생성되었다. adrogatio 양식에 의하면 입양될 자는 이미 생부의 권위로부터 독립적인 존재이거나 자신의 본래 가문의 제의에 대한 공식적인 포기 의사를 통해 그의 생부의 권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⁷³⁾ 따라서 그 양자의 경우 자신에게 속한 그의 자녀와 모든 재산이 양부에게 돌아간다. 결과적으로 adrogatio에서는 극단적으로는 한 가족의 가계와 가풍의 영속화를 위해 다른 한 가족의 가계와 가풍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⁷⁴⁾ 따라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자신의 독립성을 양부에게 철저히 귀속시키는 약점 때문에 일반화된 입양양식은 아니었다.⁷⁵⁾

71) Walters, "Paul, Adoption, and Inheritance," 2001, 52p.

72) Ibid.

73)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 1, 1980 ed., 111p.

74) Scott. Adoption as Sons of God. 1992, 10p.

V. 성경의 구원에서 양자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신약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었다. 신약성경에는 이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다.⁷⁵⁾

이제 양자됨은 더 이상 과거의 역사(historia salutis)가 아니라 현재의 것이 되었다.⁷⁷⁾ 현재의 것이라 함은 적용과 누림(ordo salutis)을 말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구약시대에서는 양자의 특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 4:4~5) 구약에서 신약으로 진행되는 구속의 역사는 곧 부분적 특권에서 궁극적 성취로 진행되는 역사이고, 그 역사는 곧 구원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 현재적 특징은 성령(아들의 영)이 아들들의 영에게 양자됨을 증거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이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여기에서 “부르다”는 분사이고 이 분사의 주격은 중성명사인 “영”이 된다. 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아들의 영 곧 성령이시다. 비슷한 말이 로마서 8장 15절에도 나온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75) Walters, "Paul, Adoption, and Inheritance," 2003, 53p.

76)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갈 3:26), “그 기쁜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5),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 21:7).

77) 강웅산, “양자의 교리: 성경신학적-조직신학적 접근”, 「성경과 신학」 74, 2015, 84p.

부르는 동작이 나오는데, 이때 동작의 주체는 일인칭 복수로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란 점에서 갈라디아서와 다르다. 칼빈⁷⁸⁾은 이 경건을 소유한 인격체(the pious mind)⁷⁹⁾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요약하면, “이 경건한 인격체는 다른 헛된 신을 꿈꾸지 않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응시한다. 이 인격체는 최고의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 이 인격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철저하게 신뢰한다. 이 인격체는 하나님을 주와 아버지로 이해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대한 그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의 영광의 증진에 관심을 쏟고, 그의 계명에 순종한다. 이 인격체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 선한 자를 보호하시며, 악한 자를 아주 엄격하게 벌

78)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386703&cid=50766&categoryId=50792>. 루터나 츠빙글리에 비해 한 세대 정도 후배인 칼빈은 그들의 어깨를 딛고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었다. 그는 프랑스 인문주의적인 기반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기독교 교부,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 전문가로서 이 신학을 배경으로 인문주의와 논쟁하는 개신교 신학을 창출하였다. 그는 1509년 7월 10일에 프랑스 노용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법률가로서 노용 대성당의 공증인이자 재정담당이었다. 1523년 칼빈은 파리에서 마르슈대학과 몬테규대학을 다녔고, 1528년 초에 인문학 석사가 되었다. 1528년 아버지의 희망에 따라 오르레앙과 부르주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은 후 1531년 칼빈은 다시 파리로 돌아왔고 1533년에 법학 박사 과정에 지원하였다. 동시에 그는 인문주의도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첫 저작인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출판하였다. 1533년 칼빈의 친구인 파리대학 학장 니콜라스 콥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라는 마태복음 5장 3절을 중심으로 연설을 하였다. 그 내용은 에라스무스-루터적인 사상을 담고 있었으며 스콜라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문제로 칼빈은 콥과 함께 파리를 떠나야 했는데, 이로 미루어 칼빈이 그의 연설문을 초안하는 데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칼빈은 샤를 테스페빌이란 가명을 사용하였고, 인문주의자들과 만날 수 있는 프랑스 전역을 방랑하였다. 그런 와중에 칼빈은 개신교도들과 접촉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파리에 나타나기도 하였다. 1534년 10월에 이단적인 내용의 진단이 왕의 침실까지 등장하자 개신교도들을 향한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칼빈은 다시 파리를 떠나야만 했다. 그는 잠시 스트라스부르크를 거쳐서 바젤에 정착하였다. 그는 여기에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파렐, 비레, 불링거와 접촉하였다. 1536년, 그는 이곳에서 『기독교 강요(綱要)』의 초판을 완성하였다. 자신의 새로운 종교개혁 신학을 총체적으로 기술한 이 기념비적인 책은 구성형식에서 1529년 루터의 「요리문답서」를 따르고 있다. 이 책은 우선 프랑스 내의 개신교를 위한 변증으로 쓰인 것이다.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에게 바친 헌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신교도는 윈스터 왕국의 재세례파와 달리 그 어떤 정치적인 폭도가 아니라 충성스런 신하임을 주장하고 있다. 점차 이 책은 칼빈주의적 개혁교회의 전범(典範)이 되었다. 칼빈은 이 책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가톨릭과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주의와 논쟁하였다. 이 책은 그 문체가 분명하고 유려하여 16세기의 그 어떤 작품도 그의 라틴어 문장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걸작이다. '칼빈이 최종적으로 종교개혁 사상을 인식하게 된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1527년 칼빈은 루터나 부처의 저술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가 1528년 스트라스부르크를 방문한 것도 그의 종교개혁적인 회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칼빈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종교개혁적인 전향은 소위 '갑작스런 회심'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전향은 내적인 갈등과 투쟁이 있던 1533년 8월에서 1534년 5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 칼빈은 자신의 성직록을 포기하였다.

79) 「New Ace 영한사전」 금성출판사, 2004. 보통 영어에서 'mind'는 인간의 지성을 설명하는 단어이다. 단순한 지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감정, 의지의 작용을 관장하는 마음으로서의 지성을 말한다.

하시느 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재판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을 깨뜨릴까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므로 그의 보호도 의로우시며, 그의 형벌도 의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인격체는 형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주님으로서 예배하며, 섬기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을 삼간다.”⁸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따라 부름을 받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치루는 속죄 사역을 통하여 자유의 신분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신자는 자신의 이전의 죄악 된 삶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완전한 단절이 요구되며, 하나님의 가족에의 전적인 동화 곧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과 유업을 약속받게 되는 것이다⁸¹⁾.

또한 이 모든 양자됨의 완성에 대한 보증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아담 안에서의 경건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반응하는 자녀로서의 유기적 공경, 하나님의 군주로서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에 반응하는 종으로서의 유기적 충성심이다. 이 ‘공경’과 ‘충성심’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서로 구분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신비한 결합이다. 둘째는 ‘공경’과 ‘충성심’은 각각 유기적이다. ‘공경’과 ‘충성심’ 앞에 ‘유기적’이란 수사가 붙은 이유는 이 마음이 독자적으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떠한 자극에 대하여 반응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열매’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반응하는 ‘열매’로서의 ‘충성심’이다. 신약에서 바울은 부활 영,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신자)를 그리스도의 후사로서의 상속자로 설명한다. 은혜의 시대에서 양자됨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에 의해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부자관계로 연결되며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성도는 그 명분뿐만 아니라 실질적 특권으로서 미래의 영광에 대한 자격, 하나님 나라를 기입

80) John Calvin, McNeill-Battles, tra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9), 42p~43p.

81) Lyall, "Roman Law in Writings of Paul-Adoption," ed, 2002, 466p.

으로 받고 부활에의 참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⁸²⁾

이 언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양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상속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주의 자녀를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다.

VI. 나오며

앞에서 양자의 의미와 성서 속의 다양한 양자들을 살펴보았고, 기독교 구원의 관점에서 양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알게 되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약에서만큼 친근하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언약사적 또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갈 4:4).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됨은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훨씬 중심적인 개념이 된다. 따라서 신약의 양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 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고, 구약의 양자는 이스라엘 선민에게만 주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⁸³⁾ 구약은 아버지-아들 관계가 아직 잠정적이고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반면, 신약은 아들로 드러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됨의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⁸⁴⁾

은혜의 시대에서 양자됨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에

82) 「호크마 종합주석 : 로마서」, 기독지혜사, 1991, 280~281p.

83)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택하심의 관계를 가족관계, 특히 입양의 관점에서 다루는 구절들이 있다(왕인성, “바울서신에 나타난 양자결연의 기원과 그 신학적 함의”, 부산장신대학교, 부산장신논총, 2004, 87~88p).

84)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비유는 단순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은유가 아니라 고대인의 가족에서 발생한 입양이야기를 신앙공동체인 이스라엘을 한 가족으로 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비유를 넘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노남근, “구약성경에 나타난 양자신학”, 박사학위논문, 개신대학원대학교, 2016, p.161).

의해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부자관계로 연결되며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성도는 그 명분뿐만 아니라 실질적 특권으로서 미래의 영광에 대한 자격,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부활에의 참여를 보장받게 되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우리속담의 의미를 부인할 사람은 없지만 기독교인은 피는 물보다 진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진할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형제, 자매, 가족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의 편견과 혈통 더 나아가 이 시대가 추구하는 문화와 가치관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새 가족을 찾아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신실한 자녀가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선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용-Rainer Frank, "완전양자제도(친양자제도) 입양아동의 복리를 위한 유일한 대안",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3권 제1호, 2002.
- 강웅산, "양자의 교리: 성경신학적-조직신학적 접근",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5.
- _____, "양자의 교리: 성경신학적-조직신학적 접근", 「성경과 신학」 74, 2015.
- 노남근, "구약성경에 나타난 양자신학", 박사학위 논문, 개신대학원대학교, 2016.
- 김성숙, 「사회변동과 한국가족법」, 나남, 2008.
- 백성기, 「친족상속법, 진원사」, 2011.
- 신영호·김상훈, 「가족법강의」 제3판, 세창출판사, 2018.
- 윤대성, 「가족법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10.
- 왕인성, "바울 서신에 나타난 양자결연의 기원과 그 신학적 함의", 부산장신대학교, 부산장신논총, 2004.
- 이양구, 「구약 시대의 생활 풍속」,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3.
- 이은주, "자의 복리를 위한 친양자제도", 한국가족법학회, 2013.
- 「호크마 종합주석 : 로마서」, 기독지혜사, 1991.
- 「New Ace 영한사전」 금성출판사, 2004.
- 국제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안 공청회자료 법무부 의견, 1993. 3. 11.
- Carolyn Osick and David L. Balch, Families in the New testament World : Households and House Churches,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7.
- David Noel Freedman, ed.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NewYork : doubleday, 1992.
-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 1 ed, 1980.

- Francis Lyall, "Legal Metaphors in the Epistles," Tyndall Bulletin 32, 1981.
- Herman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2.
- Homer H. Clark Jr, *Law of Domestic Relations*, 1969.
- James D. Hestea, *Paul's Concept of Heritance*, London : Oliver and Boyd. 1968.
- John Calvin, McNeill-Battles, tra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9.
- J. M. Scott. *Adoption as sons of God : An Exegetical Investigation into the Background of Hyothesia in the Pauline Corpus*, Tübingen : J. C B. Mohr. 1992.
- Lyall, "Roman Law in Writings of Paul-Adoption", ed. 2002.
- Mark Black "Paul and Roman Law in Acts" *Restoration, Quarterly* 24, 1981
- Roland de Vaux, *Das Altc Testament und seine Lebensordnungen*, Verlag Herder KG Freiburg im Breisgau, 1964.
- Rossell, "New Testament Adoption-Graeco-Romna or Semitic?" cd, 2011.
- The Biblical Archaeologist*, vol.3, February, 1940.
- Walters, "Paul, Adoption, and inheritance", 2003.
- William Foxwell Albright, *The Archaeological of Palestine and the Bible*, Cambridge, Mass: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974.

The adoption in the Bible

Lee, Eun-Joo⁸⁵⁾

<Abstract>

In religion, people often consider that salvation is a myth that becomes a righteous and leads to the afterlife by believing in God and doing good. But the journey to redemption does not end with us being moralized. Surprisingly, the Bible follows the Holy Father's bilateral rights as Christ becomes the Son of God.

This is the special grace of God that the Christ enjoys: the grace that we are the children of God. The adoption of the Christ is higher than the heaven and wider than the sea of the Father of God, so that as a result of his restraint, he obtains his acquired status as the child of God.

Thus, the concept of adoption in the Bible is actually a very important concept and is directly related to the meaning that Christ came to this land, and the adoption system in the Bible emphasizes from many angles that our salvation is closely related to believing Christ as the Son of God.

In addition, the king of all things created in the world, God is called a father by faith, and he can serve us beautifully, because our lives are arranged like the princess of heaven and prince of heaven in front of God and men, and we dare to see the life of heaven in advance.

Keyword : Bible, Adoption, Old Testament, New Testament, Grace, Salvation

⁸⁵⁾ Doctor of Law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